

여수시, 여수석유화학산단 위기 극복 ‘온 힘’

글로벌 석유화학 불황 장기화 위기진단… 경쟁력 강화 추진 고부가·친환경 산업구조 전환 “당면 위기 타개 적극 지원할 것”

여수시가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친환경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여수산단의 위기 탈출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최근 석유화학업계는 글로벌 경기침체

와 탄소중립 이행, 공급과잉에 따른 범용 석유화학제품 매출 감소 등 침체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여수 석유화학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7월 석유화학 분야 전문가와 관련 기업, 전남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산단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추진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정책 등 대책을 수립하겠

는 계획이다.

지난 9월에는 전남도와 함께 지역 내 대표 석유화학기업 및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해 공단 유틸리티 및 인프라 구축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전담팀(TF)’도 구성했다.

전담팀(TF)은 규제개선 분과 및 인프라 조성·인력양성 분과로 나뉘어 분야별 현장 중심의 정책발굴과 규제개선,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기업 관계자와 산단 전문가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협의체’를 발족해 위기 대응 정책 자문과 대정부 건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탄소중립 정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우선 여수국가산단을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관련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협력 기업을 유지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석유화학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보유했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개발(R&D)과 기반 시설 구축 사업 추진 등 고부가·친환경 산업으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재의 당면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2025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모집

내달 15일까지 접수

여수시가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내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창업 초기를 지원해 청년 인력의 어촌 유입을 돕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기존 어업, 양식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경영에 해양레저관광업이 추가됐다. 모집 대상자는 여수시에 거주 중인

1985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로, 수산업 독립경영 3년 이하의 경력자 또는 창업예정자다. 단, 해양레저관광업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여수시 누리집(www.yeosu.go.kr)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수산경영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모집 기간 이후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평가를 진행해 최종 1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공정무역 축제 성황… 제품 체험 기회 제공 등

여수시는 지난 19일 종포해양공원 일원에서 ‘2024년 여수시 공정무역 축제’를 열고 공정무역 가치 확산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공정무역은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거래 방식으로, 공정무역 제품 소비를 통해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착한 소비’를 말한다.

이날 축제에는 여수YMCA, 아름다운

가게 등 9개 단체가 참여해 공정무역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공정무역 중요성과 가치를 홍보했다.

또한 공정무역 퀴즈 맞추기, 포토존 등 각종 부대행사를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정기명 시장은 “공정무역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행동”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공정무역에 대해 알아가고,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회장 김경하)는 지난 21일 원아 10여 명과 보건소를 방문해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 방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폐의약품 수거 동참

분리수거 배출 방법 배워

여수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회장 김경하)는 지난 21일 원아 10여 명과 보건소를 방문해 수거한 폐의약품을 전달하고, 직접 폐의약품 분리수거함에 넣어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활동은 여수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의 지구 건강 지키기 프로젝트 ‘지구야 우리가 변할게’의 일환으로, 23개 민간어린이집 원아 1020명의 참여로 지난 9월부터 각 가정의 폐의약품 10kg을 모아 전달했다.

김경하회장은 “아이들에게 폐의약품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가르쳐주는 유익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아이들과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가 지난 18일 생활문화센터에서 양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에 환류하는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여수시 제공

양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효율성 검토 및 결과 공유

여수시는 지난 18일 생활문화센터에서 양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에 환류하는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에는 여수시 여성가족과와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단장 이현영), 전남여성가족재단(원장 성혜란)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인지

적 관점에서 본 정책 및 조례의 적정성·효율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시에서 제작·배포한 홍보물의 성인지성을 중점 점검했으며, 자유토론을 통해 성 주류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전남 최초로 양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기존 정책을 수정·보완 해가며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09년 전국 제2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세 차례 인증을 갱신했으며, 오는 2027년까지 ‘평등한 일자리 도시’, ‘안심하고 누리는 안전도시’, ‘일과 생활이 있는 돌봄도시’,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도시’ 조성을 목표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선정

총 220대… 4등급 155·5등급 65대

여수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결과 총 220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155대와 5등급 경유자동차 65대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토대로 산정된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이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기본 보조금에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 신차·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차량 기준가액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무공해(전기·수소)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상한액 이내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

를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차·중고차 구매 시에는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를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차량별 폐차 지원금 등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www.yeosu.go.kr)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한 경유차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다”며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더욱 확대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 흥국상가서 ‘재즈가 흐르는 흥투길 야시장’

25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여수시는 흥국상가 상인회가 주관하는 ‘재즈가 흐르는 흥투길 야시장’이 오는 25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흥국상가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흥국상가 상인회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인 ‘첫걸음기반조성’에 선정돼 중기부와 여수시의 지원을 받아 마련된 행사다.

행사장에는 수공예품, 액세서리 등 20여 개의 프리마켓이 준비돼 있으며, 재즈 피아니스트 김가온과 색소폰 이병주 밴드 초대 공연과 더불어 와인 시음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흥투길 야시장에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예술 공연이 준비돼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휴식을 선사할 것”고 전했다.

여수=이경기 기자